

혁신위 배수진에 국힘 지도부 '마이웨이'...총선 대비 잔걸음

인요한 '희생·공관위원장' 요구, 수용 가능성 낮아 혁신위 조기 해산 가능성...공천·공약 준비 가속페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의 희생 요구를 공식화하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지만, 김기현 대표를 위시한 지도부는 현 체제를 중심으로 한 총선 준비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최근 주류 희생을 요구한 혁신안을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이를 거부하려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는 '강수'를 던졌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위 조기 해산까지 함께 시사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인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추천 요구는 이미 김기현 대표가 즉각 거부했다. 주류 희생 요구가 최고위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한다. 개인 거취 문제는 당 지도부가 의결해 강요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당 고위 관계자는 3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사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응답을 할 여지는 남아 있지만, 최고위에서 의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인 위원장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혁신위는 조기 해산 수순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 경우 혁신위를 띄우며 전권을 위임했던 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역시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혁신위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모두 거절하면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이대로 활동을 종료해서는 안 된다'며 조기 해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혁신위는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4일까지 지도부가 요구를 수용하는지 지켜본 뒤 화상회의 등을 통해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도부는 혁신위 조기 해산 가능성과 별개로 자체 계획에 따라 총선 준비 체제를 가다듬고 있다. 혁신안의 취지나 정신은 존중하지만, 조기 해산이 현실화하더라도 현 지도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지도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혁신위와 갈등으로 인한 잡음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총선 준비에 매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도부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현역 컷오프와 인재 영입, 공약 개발 작업 등 총선 준비 작업이 급속도로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르면 이달 중순 출범하는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무감사 결과와 총선거확단의 평가 지표 등을 넘겨받아 지역구별 '대표선수 선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재영입위원회의 영입 인사 발표도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영입위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다양한 인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접촉해 '새 얼굴'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일단 컷오프 명단을 바탕으로 해 조만간 이뤄질 개각을 통해 당에 돌아오는 의원 경력 장관들과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대통령실 참모들, 영입 인재 등을 대상으로 지역구별 '공천 퍼즐 맞추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뒤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오늘 개각...최소 장관 7명 교체

尹,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 총선 출마자 빼고 관료·전문가 기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이동관 방통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한 데 이어, 이르면 4일 중폭 이상 개각을 단행한다.

앞서 이동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도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날 저녁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개각 명단은 비정체인 인사들 위주로 꾸려질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치인 출신들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이유로 대거 후보군에서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관료·학계·전문가 출신 인사들이 내각을 채우게 되는 것이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나 이동관 전 방통통신위원장 사퇴 등으로 여수선해진 내각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포함한 국정 과제에도 속도를 내야 하는 점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이 유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방금 장관이 출마할 경우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방 장관은 여권 인사들로부터 고향인 수원 지역구 출마를 강력 권유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관에 취임한 지 3개월여 밖에 안 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에는 정

통 경제 관료 출신인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뒤를 이어서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유력한 가운데 심교인 국토연구원장도 여전히 물망에 있는 상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으로는 송상근 전 해수부 차관과 선장 출신 교수로 유명한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된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과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임에는 각각 여성인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우태희 전 산업부 2차관이 거론된다.

최근 총선 출마를 확정 지은 이영 중기부 장관 후임으로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와 더불어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에는 노동경제학을 연구해온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과기부 장관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유지상 관운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맞물려 이번 유지전을 주도해온 박진 외교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인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다만, 연말·연초에 '원포인트'로 인선을 단행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김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중앙부처 19개 장관 중 7~10명이 교체되는 '중폭 개각'인 만큼 윤 대통령도 주말인 이날 공식 일정을 비워둔 채 막판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8년 중단' 한일고위경제협의회 복원

이달 중 서울 개최 사실상 확정

한일 외교당국이 8년 가까이 중단됐던 양국의 포괄적 경제 분야 협의체인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조만간 가동할 예정이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 내 서울에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개최하는 일정을 사실상 확정하고 의제 등을 협의 중이다.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한국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일본 외무성 경제 담당 외무심의관이 수석 대표를 맡고 양국의 다양한 경제부처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1999년 시작돼 양국을 오가며 정례적으로 개최되다가 2016년 1월 도쿄에서 열린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못했다. 2016년 말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데 대한 반발로 일본 정부가 개최를 일방적으로 연기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응해 2017년 1월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연기를 비롯해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 일시 귀국,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다 올해 3월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이후 한일관계가 회복되고 그간 중단된 각종 협의체를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고위경제협의회 재개 논의도 이뤄졌다.

한일 정상은 지난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고위경제협의회 연내 재개에 합의했고 이후 8월, 11월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도 회의 재개 의지를 확인했다. 고위경제협의회가 개최되면 한일 정부가 최근 강조해온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경제협력 관련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는 회의인 만큼 다양한 의제가 거론될 수 있다.

특히 일본 측에서는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해제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연합뉴스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은?

에너지 절약

- 에어컨 설정온도 1°C 높이고,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C 유지하기 (0.41kWh/일)
-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0.36kWh/일)
-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0.32kWh/일)

한국지역난방공사
KOREA DISTRICT HEATING CORP.